



21. 06. 04.(금) 14:00

비전홀(3층)

- 2021년 제3회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

회 의 록

□ 시장님 인사말씀

- **[간 사]**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팀장 이경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민관협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기 민간협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공동위원장이신 백군기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 장]** 반갑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1기로써 2년이 벌써 됐어요. 요즘에 보니까 시간이 진짜 월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금요일이예요. 서정일 위원님은 요즘 시간이 잘 가요?
- **[서정일 위원]** 예, 굉장히 잘 갑니다.
- **[시 장]**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안 가서 빨리 어른이 돼서 담배도 좀 피우고 싶고 술도 한 잔 먹고 싶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어났다면 월요일이 됐다가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벌써 2년이 되어 버리셨어요. 박영숙 공동위원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찌 보면 용인시가 된 이후로 협치위원회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유진선 위원님, 있었죠?
- **[유진선 위원]** 시장님 때 와서 처음인데요. 조례가 18년.
- **[시 장]**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협치위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아마 이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것 중간평가를 해 보면 아직도 협치위원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착안해서 예산도 태우고, 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10억 정도 떼어주고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하는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는 것은 멀은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셔서 금년 예산 8가지 사업에 여러분의 생각이 녹아들어가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것이 어찌 보면 큰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그것도 아마 내가 볼 때 공무원들 생각대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협치가 되려면 여러분의 얘기나 아이디어가 거기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8개 되죠?
- **[공동위원장]** 올해 선정한 것은 5개까지.

- **[시 장]** 하여튼 그것이라도 이번 금년에 뭔가 성과가 나고 처음으로 협치를 위해서 해 보니까 보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임기가 묘하게 중간에 끊기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임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종환 씨는 재임됐나요?
- **[이종환 위원]**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요.
- **[시 장]** 잘릴 거예요. 이연선 씨는 신청했나요?
- **[이연선 위원]** 아니요. 신청 안 했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 **[시 장]** 하여튼 새로 연임이 되셨든 안 되셨든 간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5개 사업이라도 정말 협치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협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선 협치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또 갈등.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어떤 것이 되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과 허탈함이 아마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곽선진씨, 어땠어요?
- **[곽선진]** 많습시다.
- **[시 장]** 그런 것이 어때요? 많죠?
- **[곽선진]** 예.
- **[시 장]** 내가 보니까 재임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뭔가 이분들에게 흥미가 없구나. 안 하려고 그러면 흥미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들어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경쟁이 심해서 10:1, 20:1 돼서 해야 되는데, 이연선 씨처럼 흥미를 잃어버려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 **[이연선 위원]**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 **[시 장]** 그렇다면 외곽에서 지원하고 조언하고 지혜를 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작은 것

부터 하나씩 챙겨서 협치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성공하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행복마을 이번에 2개 생겼죠? 거기를 가면서도 내가 느낀 것이 행복마을에 가서 청소하는 것과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 하는 것, 소위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틀 그 범주 안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은 행복마을이라고 되게 좋은데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신선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군데를 보고 첫 번째 출범할 때는 그래도 조금 하는데 어제 포곡에 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봉사단체의 틀이 조금 바뀐, 변형된 정도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협치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이왕에 만들었으면 정말 멋지게 잘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도움을 주시고, 협치위원님들은 한 2년 하셨으니까 후배님들께 좋은 내용을 인계하고 가이드해서 정말 시장이 7기 임기를 마치면 그래도 내가 민관협치위원회만큼은 잘 운영해서 뭔가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였고요.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2기가 출범할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협치위원을 했던 분들 중에 표창을 안 받으신 분들은 표창을 전부 건의하세요. 그것을 어느 한 날에 몽땅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표창을 드려서 전부 다 드려서 그것에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다음 일정이 관계로 끝까지 회의에 참석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1기 민관협치위원님들과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개회 및 위원장 인사말씀**

- **[간 사]**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회의는 진행하였지만 이렇게 직접 뵙고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새롭게 협치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된 분들은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간 사]** 먼저 협치위원님으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유 진 선 용인시의회 위원님입니다.
- 조 정 권 자치행정실장님입니다.
- 김 종 무 도시정책실장님입니다.
- 이 창 호 교육문화국장님입니다.
- 손 상 훈 일자리산업국장님입니다.
- 손 성 철 시민소통관이십니다.

○ **[간 사]** 다음은, 2년간 용인 협치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박 성 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교육기획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 이 연 선 시민공론화분과장님입니다.
- 서 정 일 제도개선분과장님입니다.
- 이 종 환 포럼실무위원회대표님입니다.
- 차 명 제 위원님입니다.
- 홍 창 기 위원님입니다.
- 김 준 영 위원님입니다.
- 김 창 울 위원님입니다.
- 목 건 수 위원님입니다.
- 김 승 민 위원님입니다.
- 이 인 규 위원님입니다.
- 이 우 리 위원님입니다.
- 박 영 속 공동위원장님입니다.

○ **[간 사]** 박영숙 공동위원장님, 인사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 **[공동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새롭네요. 저희가 2년 동안 회의를 굉장히 자주 열심히 했거든요. 한번 모이면 길게. 그런데 무엇보다 아까 시장님께서 위원들 너무 힘든 것 같다,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큰 변화가 우리가 지난해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애써주시고 해서 협치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협치위원님들 수가 늘었죠. 특히 시정에서 제일 중요한 몫을 맡고 계신 실장님, 국장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이 알아주신 것처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의원님이 와주셔서. 게다가 오늘 우리가 심의할 올해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의제에 대한 각 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 설문조사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셔서 오늘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원된 협치위원회가 앞으로 훨씬 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받아서 많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저희가 사업을 그러니까 의제를 발굴도 하고 선정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하는데 너무 매달렸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성과나 작은 성취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감과 신뢰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협치는 과정인데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품을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기부터 열심히 워크숍도 하고 의제 선정해서 경찰대를 변신해 보자는 것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치포럼을 기획해서 진행도 했고, 또 시민들에게 의제를 받는 시도를 했는데 올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제는 40건쯤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800명 가까운 771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게다가 주관식으로 제안까지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동도 받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말 그냥 받을 가는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 거기에 기반을 놓고 정말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협치위원님들, 정말 애쓰셨고요. 그리고 새로 자리해 주신 분들, 진짜 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애썼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 **[간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진행순서는 2022년 협치 선정심의에 앞서 2021년 협치사업 추진보고, 그리고 2022년 협치의제 선정심의,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제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은 2명인데 시장님, 그동안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오늘 시장님이 앞부분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 **[시 장]** 내가 아마 진행을 끝까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 **[공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시 장]** 제가 하나만 진행할게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두 분 스스로 한번 소개해 보세요.
- **[최서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서원입니다.
- **[이선경 위원]** 안녕하세요? 예술플랫폼 꿈지락협동조합의 이선경입니다.
- **[시 장]** 이상으로 제 진행은 마치고 공동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보고

- **[공동위원장]** 간사는 성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28분 중 (2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추진보고 및 회의사항

- **[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회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를 위원님들의 박수 3타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3타)**
- **[공동위원장]** 이선경 위원님, 최서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둘러 오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아까 협치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순서는 올해 시민들께서 내주신 의제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 먼저 심의안건이었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8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지난해에 선정한 8가지 의제가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짝 저희가 살펴본 뒤에 올해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 **[위원들]** 예.
- **[공동위원장]**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8개, 올해 의제심의는 5가지 의제를 이따 다를 거고요. 일단 지난해에 선정되었던 8가지 의제에 대해서 추진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협치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시민협치팀장]**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협치사업 추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마을관리기업 설치 사업입니다. 민관협치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마을관리공동체 분야를 반영하여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 주민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투기물 관리, 단지 청소, 방역방제교육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사업방식 및 회계처리, 수익사업 발굴 및 법인 설립 등 마을관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1월 제안자와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실무위원회에 청소년 2명이 포함되어 청소년 관점에서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처인성어울림센터에서 실무위원 대상 현장 견학과 함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흥덕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 처인성어울림센터와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도면 설명

과 공간 구성에 대한 실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실무위원회에서는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동네축제, 문화행사 민관협의체 구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생활문화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용인시의 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분석 중으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생활문화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활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문화예술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문화도시 추진단 구성, 행정협의체 TF팀 등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특강 및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담당관에서는 청년랩 공간 대관 등 청년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화학물질 감시학교 운영 및 모니터링단 구성입니다. 지난 12월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 등 17명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위원회 개최 및 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위원회 개최 후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활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입니다. 고기근린공원 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제안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교류 등이 있었으며, 지난 4월 놀이터 명칭을 숲바람놀이터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고기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주차장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6월 실시설계 후 하반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작년에 공론장도 열어서 제안하신 분들도 그 아이디어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담당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어느 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이런 모임은 구성되었는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놀이터위원회 같은 경우는 4회 회의를 거쳤지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데는 아직 그냥 구성된 상태라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들을 보고받으셨는데,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특히 공론장을 열었을 때 각 테이블에 의제별로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분야를 지정해서 참석도 하셨죠? 차명제 위원님.

- **[차명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4번의 실무위원들 모임이 있었고, 저는 3번을 참여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그 마을에서 뉴스레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함께 논의하는 관의 태도도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하자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하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자세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관련공무원들이 함께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예산 관계로 그런 일이 이뤄지지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예산을 배정해서 단순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참석수당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함께 좋은 사례들을 보고 함께 논의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매우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더불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뭔가 좀 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너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이 확산돼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의 과정을 수료하고 함께 문제들도 풀어나가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위원장]** 차명제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민들 참여의지도 높고 공직자분들의 태도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말씀인데요. 특히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시민들이 훈련이 될 수 있는 견학이라든가 그런 기회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협치팀에서도 올해 의제를 다루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40건의 의제가 제안되었는데 대다수가 단순 민원으로 볼 수 있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따 이연선 분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의견과 요구가 그 안에 담겨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도 연습이 안 되고 그간 이런 경험이 없었던 터라 민원과 협치 의제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시 장]**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객선진씨, 사실 협치위원회가 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잘 된 공원을 한번 견학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버스도 있겠다, 다 가만 하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은 풍부하게 지원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협치위원회가 아까 내가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흥미가 있어야 하고 싶고 이러지 흥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협치위원회에 게시면서 좋은 공원 같은 데에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한 몇 백이면 될 텐데...
- **[차명제 위원]** 몇 백도 안 들 것 같습니다.
- **[시 장]** 버스도 있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의하시고 시는 충분히 지원해 드리세요.
- **[객선진]**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쭙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유진선 위원]** 역량강화 예산으로 몇 천 정도 편성을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공동위원장]** 시장님, 유진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짧고 굵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유진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역과 금액까지 지정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 **[유진선 위원]** 몇 백은 안 될 것 같고요. 5,000만원 정도 통으로 세워서 협치 실무위원회 역량강화예산으로 편성해서 남은 것은 반납하고 될 것 같아요.
- **[공동위원장]** 예, 이연선 위원님.
- **[이연선 위원]** 질문이 있어서 손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마지막 날인데 땡스깃발이 없네요?
- **[공동위원장]** 국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Thanks But’ 이라고 써 있는 노란 삼각깃발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발언이 길어지면 위원님들 세 분이 들면 바로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저희가 모두 다 익숙해져서 이제 필요 없어진 것 같습니다.
- **[이연선 위원]**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 6개 의제사업 중에서 실무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이 어디고, 또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협치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주도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관이 주도한다고 해도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실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협치팀장]** 내용을 보시면, 마을관리기업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에 마을공동체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저희 실무위원회 구성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음해서 제안자분과 협치위원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축제문화행사 민관협의체와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모니터링단 구성은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기능이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같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위원회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서부공원관리과 쪽에서 횡수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명칭

선정이라든지 부지 부분에 대한 선정이 확정된 상태라 가장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공간 설치운영의 경우에도 1월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지난 5월에 실무위원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과 얘기해 본 결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처인성어울림센터에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 **[공동위원장]** 답변이 되셨을지요? 그런데 실무위원회 생활문화진흥협의회에 이선경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죠?
- **[이선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은 안 됐어요.
-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미구성인데 들어가실?
- **[이선경 위원]** 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안건 자체는 동네축제, 마을축제 내지 용인시 행사의 민간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관협치위라든지 내부에서 제안자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네축제 문화행사 민관협치위 구성,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일상화된, 단일행사의 일시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전체 일관된 기조 속에서 문화행사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좀 더 발전했고요. 발전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과정에서 생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고 장정순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유진선 의원님이 같이 발의하시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협의회 구성 자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것이 3~4월에 이뤄지려고 했는데 문화도시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구성 자체는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공동위원장]** 혹시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도 잠깐 질문드리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담당부서가 주력할 일이지만 그래도 협치팀에서 지원하실 몫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아주 여러 개라서 혹시 그것을 잘 지원하거나 그 부서가 이것을 추진하도록

옆에서 독려하는데 솔직히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 **[시민협치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축제 문화행사 민관협의체 구성으로는 생활문화진흥협의회가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6월 안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도시 추진도 그렇지만 이번 달 안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버겁다는 것보다 저희가 6개 사업이 실무위원회든 자체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팀은 실무위원회를 하게 되면 결과를 계속 피드백 받거든요. 그래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애로점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하나만 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협치위원님들이 참여하지는 않으신 상태죠?
- **[시민협치팀장]** 예.
- **[공동위원장]** 양춘모 위원님께서 자리하지 않으셔서. 혹시 고려가 되고 있나요?
- **[시민협치팀장]** 위원회 구성은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협치위원 쪽에서 들어가시지는 않고 협치의제 제안자분께서 포함된 상태입니다.
- **[공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민 위원님.
- **[김승민 위원]** 저번에 공론장 이후에 청소년문화공간 설치로 처인성어울림센터에 한번 갔습니다. 그쪽 지역이 문화인프라가 좀 낙후지역인데, 처인고등학교 안에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역의 청소년 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협치사업으로 처음에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고, 시사업으로 진행돼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나면 고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해당 처인고등학교 외에 청소년들이 이 안에 접근하기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 학교 교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고 운영시간도 학교와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흥덕,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장 시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조적인 논의의 장들, 의견수렴들이 많이 있으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창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고등학교에 있는 처인성어울림센터가 3월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9시부터 5시까지는 처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하루종일은 주변에 청소년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의 다양한 청소년 스튜디오나 그런 시설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돼서 비학기 중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동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준공하면 청소년들이 연중 100%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흥덕 청소년문화집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처인성어울림센터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기가 학기 중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동위원장]** 예, 유진선 위원님.

○ **[유진선 위원]** 저도 청소년문화의공간 설치운영이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아쉬운 점과 보완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남사고 개교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용인시에서 예산을 쫓았어요. 그래서 남사고등학교가 설립됐거든요. 그때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용인시 예산을 주는 것이 문화공간이나 지역주민... 저희는 교육청에다 저희 기초지자체 용인시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학교청소년을 위해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그때 저희도 제일 걱정했던 것이 주말에 사실 필요하거든요. 주말, 방과 후, 특히 방학 때. 이럴 때 이분들에게 개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설계에 안전시스템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항상 그런 안전문제, 여러 가지 훼손문제 때문에 결국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주말에 개방을 안 해요. 주말뿐만 아니라 방과 후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저희도 예산심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팔로업을 못 했었거든요. 향후에 그런 것을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절차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청소년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흥덕청소년문화의 집에는 흥덕중학교와 흥덕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흥덕고등학

교 학생회의 민원을 받아서 통학로 한 적도 있거든요. 서명 쪽 받으셔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무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것을 한 번 더 흥덕중이나 흥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추인인가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 더 보완되고 좀 더 민주주의 절차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라서 오프라인으로 안 된다면 구글 폼이라든지 온라인 줌 회의라도 해서, 거기도 학생회가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자치활동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을관리기업 공동체 신청이 1개만 신청된 거예요? 원래 3개를 선정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개만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여건이 안 갖춰졌다든지. 이유 설명 좀 담당부서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을관리기업 설치사업이요.

- **[이종환 위원]** 제가 간단히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문제를 푸셨거든요. 공모 신청을 꽤 홍보를 했고 다른 공모사업분야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마을관리기업이 굉장히 낯설고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 이해도도 떨어지고 해서 신청한 개수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진선 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관리기업이 헛갈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자치분권과에 더 말씀하셔서 협치위원회에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것은 활성화 돼야 하고요. 용인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중앙동과 중앙시장 쪽에 엄청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마을관리와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으면 가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라 아마 자치분권과도, 제안한 것 통틀어서 많이.... 처음 겪는 일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마을관리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보통 도시재생지역에서 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관리소, 또 제안자가 말하는 마을관리기업 이것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맞추고 내년에는 주

민들의 이해도 높이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용인에서 자랑할만한 마을관리기업이 하나 둘 정도씩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질문한 것 같은데 제가 새로 협치위원회에 들어오게 돼서요. 동네축제와 문화행사 민관협의체 구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데, 6월에 생활문화진흥협의회만 구성해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문화진흥협의회 구성이 되면 여기 위원회에서 안전으로. 사실 동네축제라는 것은 어떤 마을의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동네축제, 골목축제 이런 것이요. 그래서 거기 단위로 실무위원회를 생활문화진흥협의회에서 제대로 상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 계속사업을 할 때 민관협의체가 당연히 지원도 해 주고, 새로 또 하고 싶은 동네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생활문화진흥협의회를 구성할 때 아예 안전을, 제가 이 조례를 기억은 확실히 안 하는데 안전으로 해서 공간 단위로 실무위원회를 민관협의체를 아예 구성할 수 있게 안전으로 넣어서 확정지어주시고 앞으로 도 그것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위원장]** 중요하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청소년 위원들을 더 충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주말에 폐쇄가 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유진선 위원님께서 안전장치 같은 것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안전장치만으로 될까? 사실 운영인력에 대한 계획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학교가 개방 못 할 때가 세콤 때문이라는 답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 **[공동위원장]** 안전장치에 대한 것도 다시 실무위원회에서 다뤄지도록 저희가 기억하고 챙기도록 하고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없는데 동기유발도 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운영자들이 있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기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3군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1군데만 되었으니 이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려면 정말 파일럿 수준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말 마을관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COP 같은 과정을 보완해서 지금의 경험을 기록으로 잘 만들면, 다음에 말씀대로 홍보하는데도 마을관리기업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과정과 결과를 잘 기록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사실 8가지 의제가 6가지로 묶였잖아요. 그중의 절반이 교육문화국의 사업이어서 제가 이창호 국장님 의견을 꼭 듣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주시고 지금 지금 자리 비우신 거죠?

○ **[시민협치팀장]** 예, 회의 때문이에요.

○ **[공동위원장]**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권 실장님께서도 꼭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정권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복마을관리소도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마을관리기업은 실제로 용인에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정이 10개, 그다음에 경기도 지정이 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용인 마을밥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공간을 가지고 마을관리기업을 해서 모집은 3개 업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씩 배정했는데, 좀 전에 1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일단 기업 입장을 갖고 가니까 아마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수익을 남겨야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지원만을 받아서는, 결국 지원이 떨어지면 그 기업은 결국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마을관리기업 같은 경우 마을기업, 마을밥상, 아홉농부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행안부 지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 그리고 3년 정도 지원하면 그다음은 예산이 없는데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관리기업 처인구 남동 그린빌리지 내에서 이종환 위원님이 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을빌라나 단독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익 차원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 관리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물이 잘 관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은 잘 잡았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전구 몇 개 갈아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니

수익창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분야는... 아이템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오래된 데를 가면 관리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자기 집 안에만 관리하지 하다못해 공동현관부터 시작해서 계단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관리비라든지 서로 모범적인 사항만 되면 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일부 부담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수익모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7년 된 아파트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것들처럼 그런 차원의 맥락에서 5대5 정도로 가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1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 또는 주택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이것이 다 유사사업이에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수익모델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일파만파 커져갈 수 있거든요. 잘 된 것 하나만 해 놓으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도 올해 아니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협치의제로 제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파일럿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인 안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컨설팅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들을 위한 협치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전문가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하고, 행정도 참여하는.
- **[공동위원장]** 연구가 되면 좋겠어요.
- **[이종환 위원]** 그래서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용인에서 자랑할 만한 마을관리기업으로 성장시켜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정권 위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하나의 샘플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부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게...

- **[공동위원장]** 이따가 다루게 될 올해에 제안됐던 생활두레라든지, 사실 복지 부서로 가있기는 하지만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역량강화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실무위원회가 훨씬 더 실제연구, 전문가도 모시고 정치아카데미도 할 수 있고요. 다른 타지역의 사례를 보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으로 가면 몇 군데의 마을관리기업이 얼마 수익을 내고 그것만이 성과가 아니라, 그렇게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협치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그래서 그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성과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목건수 위원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 **[목건수 위원]** 이것 제가 같이 참여해 봤는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와닿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치팀이니까 민에서 오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접근하지 못 하는데 할 수 있게끔. 아까 교육도 그런 방식의 일부분인데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팀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다른 팀에서 같은 부서에 있는 분이라도 이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서류를 준비해 오는 것을 하더라도 간소화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동위원장]** 그렇죠. 모델을 만들어 갈 때 주민들의 이해 그리고 주민들의 잠재된 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 못 해서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모델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정일 위원님.
- **[서정일 위원]** 잠깐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데요. 청소년문화공간 설치와 관련된 것이나 지역문화의 거점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협치위원회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지만 오늘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협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어떤 협조가 잘 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관과 관의 문제도 추진을 같이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곳에 시와 교육청이 협치가 되어야만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

특히 처인구나 기흥구 외곽에 있는 마을들을 보면 주민들이 어떤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외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와 교육청이 먼저 협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개방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지 그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책임제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예, 중요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승민 위원님이 계시니까 협치팀과 함께 또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부분도 꼭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 진행될 협치사업 선정 심의를 상정합니다. 시민공론화분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이연선 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론화분과장]** 공론화분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경과와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았습시다. 총 40건이 접수됐는데요. 그중에 중복된 3건을 포함해서 37건이 되죠. 그 중에 또 단순민원 10건을 제외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원순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네요.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 **[공동위원장]** 자료는 3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민공론화분과장]** 협치팀에서 쓰레기자원 활용과 관련해서 생활감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의제 5건을 포함시켜서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22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제안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은 7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건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가장 협치에 적합하냐는 중요도를 따져서 먼저 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배점 1~5까지 해서 공론화분과에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화분과 위원 10명 중에서 7명이 참여하셨고요. 그 중에 22건을 봤더니 7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위원들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협치사업으로 갈만하다고 뽑아주신 것이 5건 됐습니다. 보면 용인형문화예술공

유사업 6분이 협치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점수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생활두레, 우리동네 생활기록가,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라인 이렇게 5건이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협치 선정절차에 의해서 시민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나온 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시민들께서 점수를 주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5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각 행정부서에서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보내서 의견을 검토해 주신 내용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저희 협치위원회 위원이신 유진선 위원님, 그다음에 박원동 의원님 찾아 뵙고 또 저희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5월 31일에 5가지 의제에 대해서 재심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먼저 탈락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두레라고 하는 것은 1인가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두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적인 제도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관협치인데 민은 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함께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생활기록가 의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숙고하였습니다. 사실 동네의 일상을 기록하고 삶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되고 아카이브로써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체를 어떻게 세울까? 문화원이라고 하는 주체, 작은도서관 등 여러 가지 주체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주체가 마땅치 않고 이것을 컨트롤한다는 것도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분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든가, 읍면동에서 동네이야기를 모아서 아카이브 기록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동네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록하는데 가치를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생활기록가도 협치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라는 의제입니다. 경전철은 사실 시민들의 가장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변도 활성화돼야 하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이 참여하기는 괴리감이 있다, 많이 활성화되지 못 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시민공간을 콘텐츠에 맞게, 역사에 맞게 활용해 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자원순환라인인데 이것은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연계하는 것으로써 경전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컬푸드판매장이라든가, 물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플리마켓도 열어보고 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연계되는, 순환되는 공간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라인 2가지를 먼저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용인형문화예술공유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해 나온 용인시문화예술운영사업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용인에는 그것을 발현할만한, 공연하고 뭔가 창조해 낼만한 그런 공간, 그런 네트워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도 계속 올라오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반영해서 용인경전철 공간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청년공간으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도농이 함께 연계되는 순환공간이 되든가. 그래서 로컬푸드를 팔 수 있는 공간이 되든가. 또 더 넓게 각 역사마다 예를 들어서 둔전에 있는 것은 농촌문화가 깊게 있는 역사고요. 그다음에 기흥 역사는 도시의 문화가 깊게 스며있는 역사니까 그렇게 각 역사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저희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선정결과로써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가지 사업과 함께 플러스 하나를 일부 반영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역사 및 주변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존으로 활용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전철을 그냥 대중교통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공간을 얼마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주변이라 함은 광장 그리고 자전거길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친환경적이고 모두 다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의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1건으로 정해서 안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공동위원장]** 이연선 고맙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짐작하시죠? 위원님들의 의견 또는 질문 말씀해 주세요.

- **[이연선 위원]** 사실 제안된 의제는 한 건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행정부서가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해 보니까 행정부서 간에 협조가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국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탁 겸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융합을 시도하셨잖아요?
- **[이연선 위원]** 예.
- **[공동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발전적으로 의제를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 짚어주신, 그동안 3가지 의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검토되었는데 이렇게 융합했을 때는 모든 부서 거기에 더해 다른 관련부서들까지. 지금 이창호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그러는데 다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도 해서 같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협치포럼 2가지를 아주 굵직한 사업이 자원순환 쪽과 생활문화, 특히 법정문화도 시 신청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민관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죠. 예, 박성수 부위원장님.
- **[박성수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협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의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협치위원회다운 의제인 것 같아서 무척 반갑고요.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작년에 있었던 경전철과 관련한 미디어파사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죠?
- **[조정권 위원]** 미디어파사드는 올해 예산이...
- **[박성수 위원]** 예산은 반영이 됐죠?
- **[조정권 위원]** 예.
- **[박성수 위원]** 저는 그것도 같이 융합해서 하면 더 좋은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공동위원장]** 예, 이선경 위원님.
- **[이선경 위원]** 저도 하나만. 저도 협치안건을 보니까 2기 협치위는 굉장히 재밋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요. 더불어 하나만 덧붙이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토론을 진행했어요. 시민들의 토론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건 중에 하나가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나왔거든요. 용인에 많은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문화자원들이 연결되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경전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경전철이 용인 수지구와 처인구를 연결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중요한 길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전철사업을 문화도시의 한 의제로 해서 진행되면 굉장히 뜻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관TF가 잘 구성되는 것이, 경전철사업이 시의 일방적인 행정적 처리 또는 과제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참여가 잘 조성돼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동위원장]** 이선경 위원님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포럼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용인문화재단 담당TF와도 아주 다양한 의견 제안하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길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용인문화재단과도 다시 말씀하실 거죠?
- **[이선경 위원]** 예, 열심히 얘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저희 회의기록을 이창호 국장님과도 다시 공유하면서 논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유진선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꼭 하실 말씀이, 저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짧게라도 의견을 주시면.
- **[유진선 위원]** 마지막에 협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융복합의제인데 협치의제로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왔는데 저에게 사전에 열리기 전에 의견이 왔을 때 경전철 활성화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용인시는 이미 경량전철주식회사와 네오트랜스에 1년에 450억을 줘요. 활성화는 기업의 몫이지 주민이 활성화할 것은 아닌데 했으면 좋

겠다고 해서 약간 보완해서 저도 의제를 경전철역사라든지 경전철 안에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우리가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우리 동네 또는 우리마을에 가까운 생활문화존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했고요. 용인시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수십억을 들여서 자전거순환도로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은 죽전에서부터 처인 오는 것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전철역사와 연결을 해서 서울시 같은 데에 보면 공공자전거정책, 공유자전거정책을 역사가 나오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관리과, 하천과, 공원조성과에서 대대적으로 순환자전거도로를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이미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나면, 우리가 철인경기를 하는 것처럼 순환도로만 만들어 놔지 사실 이것이 내가 이만큼 갔는데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경전철역사가 좀 가까우면 관련해서 연결해서 경전철역사를 이용해서 경전철을 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도 말씀드렸어요. 용인시가 이미 하는 사업에서 보완적인 사업들을 협치의제로 가져가면 훨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완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전거도로만 몇 십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연관해서 공공자전거정책, 공유자전거정책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공원조성과에서 그것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기는 한가 봐요. 시범으로 하려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전철역사와 자전거 사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 거기와 관련된 부서가 경전철역사 하부니까 경전철과, 도로관리과, 공원조성과, 하천과가 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역사 밑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기사에 나온 것처럼 최근에 기흥역사 하부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체부와 경기도와 용인시가 주관해서 40명 작가 참여하는 것을 공모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협치의제로 하나만 했으니 몇 개의 역사가 있잖아요. 경전철역사 중에서 특히 사람이 많이 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를 3개 정도 시범으로 해서 1년에 한 역사 안에서 봄, 여름은 할 수 있게. 제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이창호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봤는데, 공모사업이니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3개

역사 정도 탑승객이 많은, 이용도가 많은 데에서 공간들이 있잖아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 때문에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대응에 굉장히 노력하는데 자원순환에 대한 협치의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기후에너지과와 도시청결과가. 농업정책과보다 기후에너지과나 도시청결과가 해서 기후역사라든지... 제가 시장님에게 여쭙봤어요. 역사 중에 사람이 많이 타는 데가 동백역사, 시청역사, 중앙시장과 가까운 김량장역사 이런 데는 빈공간을 한번. 도시철도과는 협치를 관장하는 시민소통관에서 공문을 보내셔서 역사 안에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들이요. 광고만 달랑 올려놓은 그런 공간들 몇 군데를 달라고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자원순환과 관계된 성과들을 전시공간도 있고 친자원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미래산업인데 그런 것 전시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시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한 정책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안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오늘 회의 전에 의견을 묻길래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위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열심히 공론화분과에서 많이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원순환은 기후위기를 앞두고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까지 하고 에너지전환까지 고려하는 순환경제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로컬푸드라든가 폴리마켓이나. 용인이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런 농산물직거래장터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우리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우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로컬푸드매장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인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연히 기후구, 수지구에서 판매해 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생산한 물건들이 올라가서 로컬푸드매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아홉색깔농부도 있고, 알바트로스도 있고, 청년회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이 판매하시는 것을 보면 솔직히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익이 안 나는 행사

도 많이 갑니다. 저희가 하러 나가서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몇십만 원어치를 하고 어떤 분은 돈 몇만 원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하는 것이 좋은 취지이지만 전에도 저희 한국 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에서도 이것을 기흥역 다리에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흥 쪽과 저희가 하는데 취지가 어려움이, 저희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계절과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했는데 겨울에는 물건이 안 나오니까 물건을 낼 수도 없고, 또 낼 수 있는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채소류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터를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로컬푸드매장을 역 안에 상시로 하는 것도. 아까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사이클매장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로컬푸드매장도 역사 안에 한번 두는 것도.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장터 개념이 아닌 아예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보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농업인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 **[공동위원장]** 제가 이우리 위원님 다음으로 손상훈 국장님께 딱 여쭙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지목당하셨습니다, 국장님.
- **[손상훈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은 기흥도 하고 있고 수지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판매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하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소비자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상품이 다 1차 상품, 아까 말씀하신 채소류나. 그런 분들은 가서 판매고나 이런 것을 늘리시는데 그 외적인 지역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매장이라는 것이 상품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에 로컬푸드매장을 역사 내에 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역사 내에 매장을 두는 부분도 사실 경전철주식회사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동위원장]**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박성수 부위원장님께서 협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을 경험하다가 시민들이 거기에서 융합적으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품이 이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지고 나가서 고생은 했는데, 시간을 들이고 품도 드렸는데 수익은 없고 이것을 지속할 수 없는데, 그것이 문화예술과 같이 엮어서 정말 농민들이 우리 이웃들로서 그분들의 삶이 이야기로 담기고 사진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이선경 위원님의 제안대로 그것이 길이 된다면 우리가 연결돼서 또 다른 협치가 협치를 낳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네요. 그리고 사실 손상훈 국장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수요도 생겼고 해서 1차 생산품만이 아니라 포장, 유통 또는 농산물 가공 계다가 이 지역 내에서 배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스테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손상훈 위원]** 저희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위주로 해서 9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도 좀 있고 기흥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갖다 놓고, 작년 예로 보면 판매고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셨고.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도 많이 실적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아직도 농협, 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도 로컬푸드매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공동위원장]** 예, 이우리 위원님.
- **[이우리 위원]** 아까 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용인에 시장이 열립니다.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처인구 쪽은 백암도 있고 원삼도 있고 해서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기획해서 전체 용인장이라고 해서 수지나 기흥 쪽으로 해서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리사이클도 있고 공연도 같이 하는 기획으로 한번 준비해 보면.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 **[이종환 위원]** 한 말씀 잠깐만 좀 엿을게요. 일자리산업국에는 대개 관련된

부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라든지 이쪽 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나왔던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플리마켓처럼 열기도 하고 로컬푸드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경제팀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와 사회적경제팀과 이것이 같이 일을 풀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꿈지락 같은 예술을 하는 쪽과 플리마켓을 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풀면 풀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공동위원장]** 사실 정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을 더 늘려서 위촉하면서 진짜 아쉬웠던 것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용인문화재단이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이른바 중간지원조직들이 여기에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위원으로 같이 하시지는 못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꼭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다든지 협력과정에서 꼭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안건이라서 사실 국장님이 가시는데 제가 막 붙잡... 실장님 가실 때 동의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가신 거죠?

○ **[위원들]** 예.

○ **[공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손들어서 할까요? 융합적으로 해서 아주 참신하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의 의제가 제안되었습니다. 본 의제에 대해서 ‘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를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농 교류부터 로컬푸드, 플리마켓, 사회적경제, 생활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전철역사 및 그 주변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존으로 활용한다는 협치 의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그러면 출석위원 (21)분 중 과반수인 (전원)이 가결 의견이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수 3타)**

○ **[공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인규 위원님이 애쓰고 계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지난해에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연구용역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함께 스터디도 하고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TF회의 결과에 대

해서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협치팀장]** 먼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계획TFT를 구성하고 지난 5월 12일 위원님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 전략체계도를 보시면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치용인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협치기반 고도화, 협치주체 역량 강화, 시민참여제도 개선 3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8개 핵심과제와 11개 실행과제로 조정했습니다. 과제별 제안내용을 보시면 먼저, 핵심과제 1.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로 실천과제인 온라인시민참여 플랫폼과 정보공개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협치 중심의 행정프로세스 활성화로 협치실무단 구성과 협치조정관 채용으로 전문성 및 추진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협치 친화형 시정평가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협치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BSC제도에 협치 평가항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심과제 네 번째, 협치교육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협치사업 제안자의 협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할 주체별 작은 모임이나 마을실험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협치 교육을 설계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핵심과제 다섯 번째, 협치에 대한 인식공유 및 확산입니다. 포럼은 포럼 당일만이 아니라 포럼 사전·사후에도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민관협치 활동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심과제 여섯 번째, 시민사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활동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과제 일곱 번째, 파트너십 기반의 정책과정 활성화입니다. 협치 소통의 장인 공론장 운영에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단체에서 협치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내용과 의제 선정절차 중 개별 의제들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숙의과정이 공론화분과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 시정위원회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참여의사가 있는 일반시민 확보를 위해 인력풀을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구축하자는 내용과 시 전체 위원회 모집 공고,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정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각 위원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TFT 회의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동위원장]** 추진전략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죠. 협치친화형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혁신하는 것, 그다음에 민관협치 주체들의 성장역량을 키우는 일, 그다음에 협치체계를 만드는 일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팀장님과 과장님께 좀 여쭙까요? 저희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연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로 해서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절차가 필요할지요?

○ **[손성철 위원]** 시민소통관입니다.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3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수립 계획자는 협치위원장이 아니라 내용은 같겠지만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협치팀과 같이 작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민관협치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새로 만들어서 제안을 시장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안 받은 것을 토대로 최종 민관3개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민관3개년계획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100% 될 것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목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 그러니까 실행계획은 예정인데 실행계획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동위원장]** 그렇다면 실행계획이 저희 협치위원회에서 또 같이 논의를 거치겠죠?

○ **[손성철 위원]** 예, 다음 2기 위원회부터는 1기 위원님들이 고생... 일단 제가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론화분과위원회에서 금년에 협치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고 그것을 힘써주셔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 1기와 2기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

이냐면 바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하는 것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수부터는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 **[공동위원장]** 혹시 이 항목들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시민참여플랫폼은 되게 큰 숙제인데요. 소통관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꼭 제대로, 형식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견이 모이고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자원도 서로 발굴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협치적으로 행정프로세스가 가려면 BSC까지 언급이 되었는데 평가제도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의 평가기준에 협치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사실 좀 더 동기유발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조례에도 관련해서 포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았고요. 그동안 협치교육이나 공론장은 교육분과 또 공론화분과 그리고 협치팀에서 워낙 애를 쓰고 열심히들 해 주셔서 경험도 쌓인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저는 공론장이 좀 진화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사실 시민들 의제를 제안받는 절차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바뀌었고, 내년에 어떻게 하자는 것까지도 이번에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협치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늘 자리하셨던 공동위원장님께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고요.

○ **[손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협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과제가 들어왔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우리 협치위원회와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협치위원회 스스로가 아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고민과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협치팀도 마찬가지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협치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협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치에 대한 기본계획도 지금과 같은 협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했던 것을 토대로 결정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공동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태실 의견이 없으시면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이인규 위원님과 최서원 위원님과 김준영 위원님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1분 이내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김준영 위원]** 입을 이제 떼게 되었네요. 저는 제도개선분과에서 나름 열심히 배우면서 학습하는 마음으로 협치를 조금씩 알아갔고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선생님이 협치에 대해서 너무 시원하게 우호적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도록 얘기해 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선경 위원님께서 길이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인은 사실 교통이 되게 난해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고 함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적인 기반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1기 협치위원회에서 협치과제를 잘 설정해서 2기 때부터는 이미 3개년 정책이 만들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위원장]** 그동안 애쓰신 덕입니다. 이인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 **[이인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규입니다. 제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여러분께서 협치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하시면 실행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완성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사실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항상 도움을 드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청을 주시면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최서원 위원님.
- **[최서원 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용인시 민관협치위원이 첫출발이 되었다는 것과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2기가 구성됐을 텐데 그분들이 2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잘 이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환

경과 많은 여러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위원장]** 과장님께서 정말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작년 6월 18일에 시작하면서 다들 “협치는 ○○이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서 딱 하나 고르셨던 것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서툴고 달그락거리면서 왔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위원회가 이렇게 출석률이 높고요. 위원님, 그동안 저희 회의 되게 자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출석률이 높고 2시간을 꼭 채우고. 그리고 특히 감동이었던 것이 분과가 작동되는 위원회를 잘 본 적이 없는데 각 분과장님들이 너무 애쓰시고 분과에 참석한 분들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의제 같은 것도 잘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쓰셨고, 많이 배웠고, 함께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잊지 못 할 회의인데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박수 3번 치시고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격려, 응원을 담아서 30번쯤 더 칠까요?

□ 폐 회

- **[공동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3타)